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선 욱(02-2100-2860)	<b>담 당 자</b>	이 영 민 사무관 (02-2100-2865)
	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센터장 김홍일(02-2030-9310)		전 연 호 실 장 (02-2030-9311)

## 제 목 : 금융위원회 사무처장, 이프(IF) 2020 강남(GANGNAM) 현장방문

### 1 「IF 2020 GANGNAM」 및 「Y.E.S. 데모데이」 개요

- 은행권 청년창업재단(D.CAMP)는 '20.10.28.(수)~ 10.31.(토) 동안, 스타트업 축제 「IF\* 2020 GANGNAM」을 개최합니다.

\* Imagine Future, Innovation Festival 등의 약어

- D.CAMP는 '17년부터 매년 IF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, 올 해로서 4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

#### < 스타트업 축제 「IF 2020 GANGNAM」 개요 >

- 일시/장소 : (온라인) '20.10.28(수) ~ 10.31.(토)  
 (오프라인) '20.10.30(금) ~ 10.31.(토) /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
- ※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**온·오프라인 행사 병행**
- 참여기업 : 분야별 105개 스타트업 / 주최 : 은행권청년창업재단(D.CAMP)-강남구청

- 「IF 2020 GANGNAM」의 부대행사로, 가능성 있는 학생창업기업 발굴을 위한 「Y.E.S. 데모데이\*」도 개최되었습니다.

\* Young Entrepreneurs of Startups Demoday

- 본선에 진출한 10개의 학생 스타트업이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고,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.

#### < Y.E.S 데모데이 개요 >

- 일시/장소 : '20.10.30.(금) 16:00~18:00 / 코엑스 IF 행사장소 내 별도무대 설치
- 행사 내용 : 스타트업 IR 발표(10개팀), 현장평가, 시상식
- 시상 내역 : 대상(금융위원장상, 1팀), 최우수상(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이사장상, 1팀), 우수상(디캠프.프론트원 센터장상, 한국성장금융 대표상, 2팀), 입상(디캠프 멤버상, 6팀)

※ 금번 Y.E.S. 데모데이 시상 최종 결과는 행사 종료 직후 디캠프 페이스북(<https://www.facebook.com/dcampa.kr/>)을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

## 2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현장방문 (10.30일)

□ 김태현 사무처장은 창업 및 혁신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「Y.E.S. 데모데이」를 참관하고, 시상에도 참여하였습니다.

- 사무처장은 본선진출한 10개 스타트업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참가팀에게 대상(금융위원장상, 대리시상)을 시상하였습니다.

□ 사무처장은 시상식(금융위원장 격려말씀 대독)에서, IMF 총재 게오르기예바의 말을 인용\*하며 세계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긴 오르막에 직면하였고,

\* All countries are now facing what I would call "The Long Ascent" - a difficult climb that will be long, uneven and uncertain.

- 특히 보유자산·담보 등은 부족하지만 혁신적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하는 스타트업에게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언급하였습니다.
- 이에 정부는 긴 오르막을 오르는 등반가를 돕고 길을 안내하는 셰르파(sherpa)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,
- 다만, 셰르파보다 중요한 것은 등반가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며,
  - IT 기술에 능숙하고,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며, 일상생활의 개선점을 예리하게 찾아내는 청년들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해외감염병 NOW
--	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